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7

신의 명령 이론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신의 명령 이론입니다.

좋아요, 이제 주요 도덕 이론, 공리주의, 칸트 윤리, 미덕 윤리, 사회 계약 이론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신의 명령 이론부터 시작하여 윤리에 대한 더 종교적 또는 신학적 접근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연법 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명령 이론은 간단히 말해서, 특정한 행동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은 신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신은 성경에서 온갖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중 일부는 매우 일반적인 명령으로, 온 마음과 정신과 혼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일부는 매우 구체적인 명령으로, 바울 서신과 다른 성경 책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권고와 같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곰팡이나 신체 분비물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상황과 그러한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온갖 판례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명령은 수십, 아니 수백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원칙에서 특정 상황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특정 명령에 이르기까지 경전은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리에 대해 생각하고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성한 명령의 중요성은 이러한 명령이 우리를 특정 기준에 묶는다는 것입니다.

신의 명령은 구속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무라는 단어에서 어근은 legare 로 , 묶는다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문자 그대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어원적으로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볼 것입니다. 글썄요, 우리가 어떻게든 구속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의무에 얽매인다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오늘 밤은 너랑 같이 영화 보러 갈 수 없어. 왜? 난 다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 내 친구에게 내가 그를 위해 이 심부름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말했어.

의무와 관련된 일종의 구속이 있습니다. 신성한 명령은 우리를 신의 기준에 묶는다는 의미에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성한 명령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신은 명령을 내리고 , 신이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론이며, 기독교인에게 특정 문제,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신의 명령 이론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그들의 첫 번째 충동은 성경을 찾아 신이 이 특정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경에서 이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낙태, 안락사, 사형, 마약 합법화 또는 무엇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고할 것이고, 그러면 올바른 행동 방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글썄요, 오랫동안 회의론자, 종교적 회의론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은 플라톤이, 사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대화 중 하나인 에우티프로에서 우리에게 준 주장을 사용하여 신의 명령 이론에 반발해 왔습니다. 지금은

에우티프로 딜레마라고 불리는데, 무신론자 웹사이트에 가면 어느 순간 신의 명령 이론에 반대하는 이 주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더라도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신에게서 윤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그것을 반박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에우티프론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신의 명령 이론이라면 두 가지 다른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둘 다 매우 불쾌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인 에우티프론의 맥락에서 이것은 소크라테스와 종교 분쟁을 주재하는 치안판사인 아르콘 왕의 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특정 치안판사를 직접 만나기를 기다리고, 에우티프론과 소크라테스는 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에우티프론은 그에게 왜 거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불경죄, 청소년 타락, 거짓 신을 만들어낸 혐의로 자랐다고 설명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판테온 전체를 믿지 않고 오직 한 신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썄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에우티프로에게 묻습니다. 그는 글썄요, 저는 제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와, 당신 아버지? 맞아요. 무슨 짓을 했나요? 글썄요, 하인을 죽였어요. 글썄요, 그 하인은 무슨 짓을 했나요?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게 만든 짓이 있었나요? 네, 사실, 그는 다른 하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를 죽였고, 당신의 아버지가 살인한 노예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글썄요, 그는 그를 묶었습니다. 그는 어떤 권위자를 불러오고,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그를 묶고 도랑에 던졌고, 그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동안 그 하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빠가 살인범을 죽였고, 지금 당신은 그를 기소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와, 대단하네요.

당신은 정말로 옳고 정의롭고 선한 것에 대한 좋은 감각이 있어야만 당신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고소할 만큼 대담할 수 있습니다.

에우티프론의 대답은, 글썄요, 사실, 저는 옳고 그름에 대한 좋고 예민한 감각이 있고, 제가 여기서 옳다는 것을 압니다. 글썄요, 여기서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저, 소크라테스가 불경죄로 박해받고 있으니, 경건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당신의 통찰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건함과 선함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에우티프론은 너무 구체적인 꽤나 허무한 정의로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에 선함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그의 범죄에 대해 기소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일반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가 내놓은 가장 좋은 정의는 선함이나 경건함은 모든 신이 사랑하고 모든 신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경함입니다.

그건 나쁘고, 틀렸어. 오, 알았어.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당신의 다른 정의들보다 확실히 더 낫다고 말했어.

한 가지 더.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어? 물론이야. 신들이 경건함을 사랑하는 건 그것이 좋기 때문인가, 아니면 신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인가? 뭐? 그건 좀 사소한 질문인 듯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좋기 때문에 좋아한다면, 그것은 신의 사랑 외에도 그것을 좋게 만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좋다면,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다면, 질문은, 글썄요, 그들이 그것을 왜 좋아할까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일종의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에우티프론은 매우 짜증이 나서 떠납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인터뷰가 종종 그렇듯이요. 아마 그게 그를 죽인 이유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 남자에게 짜증을 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에우티프론 문제를 일신교적 맥락, 특히 신의 명령과 관련된 맥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 무언가를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 선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신이 명령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선한 것인가요? 이제, 만약 우리가 신이 x 를 명령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함이 신의 뜻과 독립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그 입장을 무너뜨립니다. 후자의 관점을 취하고 어떤 것이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좋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질문을 던집니다. 신이 왜 그것을 명령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원래 질문으로 되돌립니다. 또는 실제로 무슬림이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그가 하는 일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명령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원한다면 무엇이든 의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간을 명령할 수 있었고, 고문을 명령할 수 있었고, 아동 학대를 명령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그가 행한 일들을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잠깐만요, 그런 것들에 뭔가 너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신이 명령한 것만으로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선택 모두 나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현대 종교 철학자 리처드 스윈번은 딜레마의 두 뿔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도덕적 진실에 적용된다고 말함으로써 이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는 필연적 도덕적 진실과 우연적 도덕적 진실을 구별합니다. 필연적 도덕적 진실은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참입니다.

그것들은 진실이어야 했고, 그렇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연적 도덕적 진실은 이 세상에 대한 특정한 사실 때문에 진실이다. 따라서 스윈번에 따르면, 신은 그것들이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필요한 의무적 행동을 명령한다.

정의롭게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진실하세요. 하지만 조건부 의무적 행동은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빛을 갚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당신은 이 특정한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는 삶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규칙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발적인 의무적 행동일 것입니다. 그것이 스윈번이 그것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퀴나스의 해결책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신이 명령하는 것은 행동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선함의 기준은 그의 본성입니다.

그의 명령은 그의 본성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며, 그의 본성이 그 특정 상황이나 삶의 맥락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의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알려줍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인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이 살아 계시고 그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를 모든 것보다 존경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의 본성이 그를 모든 것보다 먼저 존중하는 것이 항상 옳고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선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명령의 목적은 특정한 도덕적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덕적 진리는 영원합니다.

성경적 명령의 목적은 인식론적이며, 도덕적으로 참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출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명령은 본질적으로 인식론적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진실을 창조하지 않으며, 신이 우리에게 말한 위의 기준 중 일부를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우리의 다양한 행동 양식에 대한 신성한 본성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것이 에우티프론 딜레마를 해결하는 토마스주의 방식입니다.

오랜 가톨릭 철학자 피터 기치는 신의 명령 윤리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도덕적 지식이 신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주장된 모든 신의 계시는 철학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만 우리가 그것이 신으로부터 온 그럴듯한 의사소통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정한 철학적, 도덕적 직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성경이 신으로부터 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신으로부터 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우리가 거기에 두고 있는 도덕적 기준조차도 철학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는 GEM 앤스컴의 남편이었는데, 그는 루이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기적에 대한 그의 책 초판의 한 장에서 CS 루이스에게 도전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일류 철학자였고, Geach와 Anscombe는 훌륭한 팀이었습니다. 어쨌든 Geach의 견해는 특정 도덕적 지식이 신에 대한 지식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일부 도덕적 지식은 신에 대한 지식과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특별히 공감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연법 전통에 더 잘 어울리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자연법 윤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유아살해, 간통과 같은 특정 행위의 일반적인 바람직하지 않음은, 그가 인용한 대로, 그러한 관행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신성한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비록 이것이 신의 법의 선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가 신이 있다고 믿지 않더라도,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순전히 자연법 윤리일 뿐입니다. 그 신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법, 제 말은,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은유적으로 말한 것인데,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은 신의 법입니다.

경전을 읽지 않고도 우리는 기본적인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접근할 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길에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특정한 도덕적 틀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타고난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에는 자연법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성한 명령 이론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신의 명령 이론입니다.